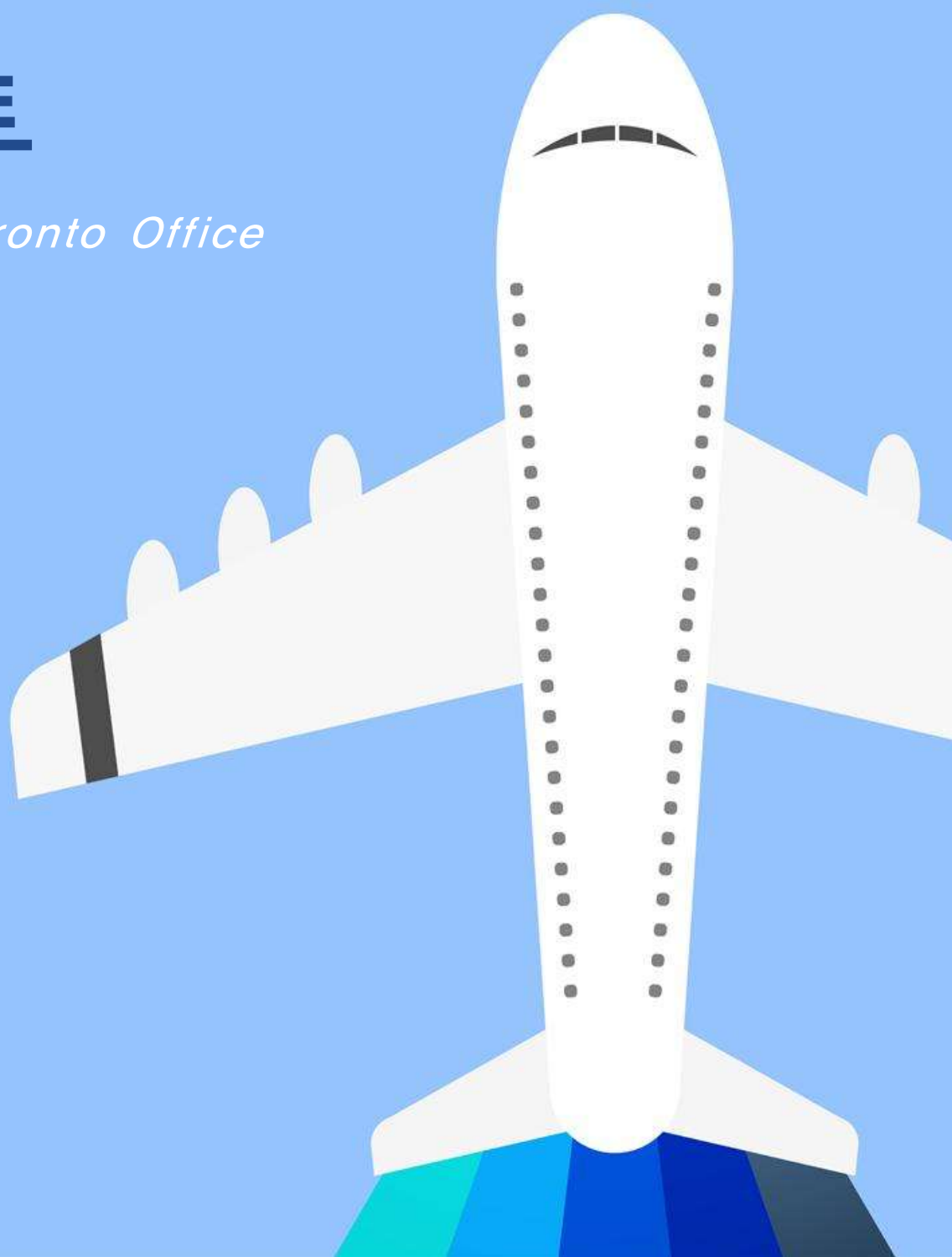


2021 해외출장 가이드

캐나다

토론토

KOTRA Toronto Office

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목 차

I . 캐나다 개황	1
II . 주요이슈 및 경제동향	3
III . 한-캐나다 교역동향	11
IV . 현지체류 참고사항	16
V . 무역관 오시는 방법	22
VI . 유관기관 및 숙소/식당	24
VII . 무역관 직원 연락처	26

I. 캐나다 개황

1. 국가 개요

국 가 명	캐나다 (CANADA)
수 도	오타와 (Ottawa) ('교역하다'라는 뜻의 원주민어 'adawe'에서 유래)
면 적	9,984,670 km ² (세계 2위, 한반도 46배)
기 후	온대성 대륙성 (중부내륙지방), 해양성 (태평양·대서양 연안), 한대성 (북극권)
인 구	3,805만 명 (2021년 1월 기준)
연방구성	10개 주 (Province) 및 3개 준주 (Territory)
주요도시	Toronto (655만 명), Montreal (436만 명), Vancouver (274만 명), Calgary (154만 명), Edmonton (147만 명), Ottawa (146만 명) 등
언 어	영어 및 불어 (2개 공용어)
민 족	영국(33%), 프랑스(14%), 독일(10%), 기타 유럽(15%), 아시아(18%), 기타 아프리카·캐리비안 등(10%)
종 교	천주교(39%), 기독교(28%), 무종교(24%), 기타(9%)
국 체	입헌군주국 (영연방)
정 체	의원내각제 (양원제)
화 폐	캐나다 달러 (Dollar) (1.00 CAD ≒ 0.82 USD, 2021년 5월 평균 기준)
건국(독립)일	1867년 7월 1일 (영국으로부터 독립)
국가원수	○ 국가원수: 영국여왕 Elizabeth II
	○ 취임일: 1952.2.6.
	○ 총독: Mary May Simon
	○ 취임일: 2021.7.26
	○ 총리: Justin Trudeau
	○ 취임일: 2015.11.4. (재당선: 2021.09.20)

자료: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s Canada) 및 정부 웹사이트

2. 주요 경제지표

구 분		단 위	2018	2019	2020	2021
실질 GDP		US\$ 십억	1,716	1,736	1,643	1,743*
	1인당 GDP	US\$	46,532	46,399	43,278	49,221*
	경제성장률	%	2.0	1.7	-5.4	6.0*
소비자 물가상승률		%	2.3	1.9	0.7	2.0*
민간소비 증가율		%	3.9	3.3	-6.1	5.0*
실업률		%	5.8	5.7	9.5	7.9*
교역액		US\$ 억	9,110	9,002	7,935	3,058**
	수 출	US\$ 억	4,510	4,467	3,893	1,545**
	증감률	%	7.2	-0.9	-12.8	21.9**
	수 입	US\$ 억	4,600	4,534	4,042	1,513**
	증감률	%	6.3	-1.4	-10.8	16.4**
	무역수지	US\$ 억	-90	-68	-149	32**
해 외직접투자(인바운드)		US\$ 억	434	503	N/A	N/A
	증감률	%	63.9	15.8	N/A	N/A
외환 보유고		US\$ 억	839	853	904	892**
	증감률	%	-3.2	1.7	6.0	-1.4
총 외채		US\$ 조	2.1	2.2	2.4	N/A
	증감률	%	9.4	4.7	7.7	N/A
기준금리		%	1.75	1.75	0.25	0.25**
연평균 환율		C\$/US\$	1.29	1.33	1.34	1.22**

* 2021년 전망치

** 무역 통계: 2021년 1-4월 누계, 증감률: 전년동기 대비 기준, 금리 및 환율: '21.6월 기준

자료 :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s Canada), World Bank, UNCTAD, IMF, OECD, Bank of Canada

II. 주요이슈 및 경제동향

□ 캐나다 2021년 G7 정상회의 참가, 백신 및 기후변화 지원 약속

- 제 47회 G7 정상회의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개최됨.
 - 해당 회담은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진행되었으며 미국, 영국, 프랑스, 캐나다 등 정식 회원 7개국과 유럽연합 등 총 9명의 정상이 참석
 - 특히 이번 회의의 확대 세션에 한국과 더불어 호주, 남아프리카공화국, 인도 정상이 초청됨.
-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(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)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극복 방안, 경제재건, 기후변화 대응 전략, 중국의 인권문제 공동대응 등 경제·외교·환경·사회 전반의 중요 사안을 논의
 -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전 세계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할 계획을 밝힘.
 - 이 중 미국이 약 5억 회분,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1억 회분의 백신 물량 지원 예정
- 저스틴 트뤼도(Justin Trudeau)총리는 약속한 1억 회분 중 약 8천 7백만 회분의 백신은 국제 백신 개발 및 공급 협력체인 ACT(Access to COVID-19 Tools) Accelerator를 통해 제공하며 나머지 1천 3백만 회분은 추가로 기부할 예정
 - 추가로 기부되는 1천 3백만 백신은 노바백신 730만 회분,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0만 회분, 얀센 백신 130만 회분으로 구성될 전망
- 더불어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기후 기금에 밝혔던 기존의 C\$26억 5천의 지원 규모를 C\$53억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.
 - 해당 예산을 통해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
□ 캐나다,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접종 가속화로 경제 재개 가속화

-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9월 28일 기준 캐나다 내에서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이 76.5%에 달하며 2차 접종률은 70.5%로 집계됨.

- 캐나다 연방정부는 7월 5일부터 캐나다 보건부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받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해 3일 호텔 격리 및 14일 자가 격리 면제 발표
 - 2021년 2월 22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필수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3일 격리와 더불어 14일 자가 격리를 필수로 함.
- 9월 28일 기준,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 등 총 4개의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있음.
 - 그 외에도 메디카고, 노바백스,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의 다른 백신들도 긴급 사용 승인 검토 중.
-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9월 22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해 비필수 업소, 공공 장소 등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.
 - 의료계에서는 백신 여권제를 통해 4차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
- 캐나다는 사용을 승인한 4개의 백신 외에도 노바백스 등 3개의 백신 공급 업체등과 선제적인 계약체결을 통해 총 4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

□ 캐나다-중국 간 긴장관계 완화 전망

- 2018년 12월,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멥완저우(Meng Wanzhou)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이후 캐나다와 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됨.
 - 멥완저우는 스카이프 테크를 이용해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위반하고 은행을 속이는 등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바 있음.
- 이후, 중국은 캐나다 국적의 사업가 마이클 스파버(Michael Spavor)와 전 외교관 출신의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(Michael Kovrig)을 억류 및 구금함.
 - 이에 대해 멥완저우 체포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함.
-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21년 G7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강압적 외교에 우려를 표함.
 - 더불어 마이클 스파버와 마이클 코브릭에게 일어난 불법적 구금은 어

는 나라에나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 촉구

- 2021년 9월 24일, 미국 법무부와 명완저우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관련 기소유예에 합의함에 따라 명완저우는 석방됨.
 - 이어 중국에 억류되었던 마이클 스파버와 마이클 코브릭 또한 석방.
- 향후 캐나다와 중국 정부 간의 긴장된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의 외교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

□ 코로나19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 증액

- 지난 4월 19일, 캐나다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(Chrystia Freeland)는 총 C\$1,010억 규모의 2021/22년도 연방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
- 일자리, 성장 및 회복을 위한 복원 계획(A Recovery Plan for Jobs, Growth and Resilience)이라 이름 붙여진 해당 예산안의 내용은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및 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함.
 - 육아와 업무의 병행을 위한 데이케어 확충에 약 C\$300억 규모 투자
 -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및 지원 혜택을 2021년 9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C\$121억 추가 투입
 - 202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연금(Old Age Security)지원을 기존보다 10% 가량 증액하기 위해 C\$120억 편성
 - 향후 6년간 캐나다 근로자 혜택(Canada Workers Benefit)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C\$89억 투자
- 특히 파리 기후 협약 목표달성과 녹색 회복(Green Recovery), 즉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해 전체 예산의 17.4%에 해당하는 C\$176억을 투입할 예정
 - 지난 2020년 12월, 캐나다 정부는 전략혁신기금(SIF, Strategic Innovation Fund)을 통해 향후 5년간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클린테크 육성에 약 C\$30억을 투자하는 Net Zero Accelerator 기금을 조성함.
 - 연방정부는 향후 7년간 해당 기금에 C\$50억을 추가로 편성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더불어 미래 산업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캐나다의 2021년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C\$3,542억에 달할 것으로

전망되며 2025년까지 캐나다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약 50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
-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계획

□ USMCA 발효에 따른 북미 주요 산업 구조 변화 전망

-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을 대체하는 미국·멕시코·캐나다무역협정(USMCA)이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됨.
 - USMCA 발효에 따라 강화된 원산지 규정과 신설된 노동 부가가치 규정으로 북미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
 -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기존 62.5%에서 75%로 상향조정되며 특히 자동차 산업 내 수입산 자동차 부품 사용은 감소하고 역내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5월 18일, USMCA 발효 1년차를 앞두고 관계국 장관들의 첫 공식 회의 진행
 - 해당 회의에 참석한 메리 응(Mary Ng) 중소기업·수출 진흥·국제무역 장관은 노동 부가가치 규정과 환경문제 관련 협약을 중심으로 USMCA 협정을 논의
 - 삼국간 무역 공급망 안정화와 환경문제, 코로나19 경제재건 등 관련 주요 사안도 언급

□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캐나다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

-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
 -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(CPTPP)으로 베트남, 말레이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
 - CPTPP로 관세율 혜택을 받는 산업은 주로 캐나다 최대 수출 산업인 농·수산업, 임업, 공업 등이며, 정부조달 시장 또한 개방되면서 해외 정부 프로젝트 참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
- 이 외에도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(ASEAN),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(MERCOSUR) 등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추진 중.

□ 경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지원정책 확대

- 캐나다는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을 꼽고 있으며, 글로벌 경제에서 4차 산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육성정책을 시행 중
 - 인공지능 육성정책: 2022년까지 C\$1억 2,500만을 투자하여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및 인재 양성 예정
 - 슈퍼클러스터 육성정책: 첨단분야의 산·학·연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총 C\$9억 5,000만 배정
 - 전략혁신기금: 54개의 첨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에 C\$12억 6,000만 투자
 - 스마트시티: 2028년까지 주요 도시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예정
- 인재 양성을 위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운영, 취업비자 발급기간 단축 등 이민문화 개방
- 2021년 6월, 캐나다 인구의 약 38.9%가 밀집한 온타리오 주는 잠재력 높은 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C\$4,000만 규모 투자 발표
 - 2018년 C\$6,000만 규모 투자에 이어 추가적으로 투자를 발표하며 총 C\$1억 수준의 테크 스타트업 육성 자금 조성
- 2021년 캐나다 사업 개발 은행(BDC,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)은 C\$3억 규모의 신규 투자자금 조성
 - 해당 자금은 시리즈C 단계의 캐나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후기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 시킬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

2. 경제동향

□ 캐나다 경제성장률(GDP) 동향 및 전망

- 캐나다 중앙은행, 2021년 캐나다 경제성장률 6.0% 전망
 -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 반등세 예상
 - '22년과 '23년에 각각 4.6%, 3.25%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지난 6월 1일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서 발표한 '세계경제전망보고서'에 따르면, 올해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6.1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□ 실업률 및 소비자 물가 변화

- 캐나다 8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.4%p 하락한 7.1% 기록
 - 이는 캐나다 통계청 관측 이래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던 전년동기(13.7%) 대비 약 6.6%p 하락한 수준
 -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른 경제 봉쇄 강화 및 완화에 따라 캐나다 실업률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
 - 백신 접종률 상승과 경제 봉쇄 완화와 함께 3개월 연속 실업률 하락세
- 7월 캐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.7%를 기록하며 2011년 이래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
 - 7월 소비자 물가는 주요 8개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에서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 기록
 - 특히 교통(+6.6%), 주거(+4.8%), 식품(+1.7%) 품목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주요하게 기여
- 내구재 제품들의 빠른 가격 상승 또한 관찰되었으며 특히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으로 승용차 가격은 전년대비 5.5% 상승
 -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천 및 가죽 소재 가구에 대한 관세에 따라 관련 품목 가격 또한 전년대비 13.4% 상승
-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 상반기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3%를 상회할 것

- 으로 예상하며 이후 2%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%에 도달할 때까지 0.25% 수준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
 - 참고로 캐나다는 2020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* 0.25% 금리 유지 중.
- * 2021년 9월 기준

□ 캐나다의 교역 동향

< 캐나다 주요 수출국 현황 >

(단위: US\$ 천, %)

순위	국가명	2019년	2020년	2021년 (1월~4월)	
		금 액	금 액	금 액	증감률
1	미국	336,560,444	285,723,164	114,756,248	20.9
2	중국	17,537,775	18,793,198	7,379,464	42.7
3	영국	14,922,745	14,841,063	5,045,048	19.4
4	일본	9,515,546	9,222,946	3,344,156	10.5
5	멕시코	5,518,314	4,573,792	2,126,999	46.0
6	독일	4,745,334	4,747,061	1,646,949	2.4
7	한국	4,183,110	3,498,260	1,340,603	18.8
8	네덜란드	3,905,684	4,032,637	1,278,754	13.9
9	사우디아라비아	2,124,611	1,161,845	993,911	109.1
10	홍콩	3,029,333	1,418,639	930,601	50.6
전체		446,617,711	389,345,978	154,530,258	21.9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

자료: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s Canada)

< 캐나다 주요 수입국 현황 >

(단위: US\$ 천, %)

순위	국가명	2019년	2020년	2021년 (1월~4월)	
		금 액	금 액	금 액	증감률
1	미국	229,992,052	197,055,963	74,446,411	12.1
2	중국	56,529,196	57,029,842	20,434,652	37.9
3	멕시코	27,874,641	22,274,369	8,386,793	15.7
4	독일	14,566,252	12,901,107	4,799,842	11.8
5	일본	12,420,965	10,088,726	3,945,075	6.9
6	한국	7,160,667	7,133,277	2,591,782	32.3
7	이탈리아	7,137,147	6,711,315	2,438,681	14.2
8	베트남	5,266,238	6,084,601	2,346,080	37.7
9	영국	6,953,334	5,843,614	2,001,125	1.0
10	대만	4,489,503	4,196,734	1,751,405	28.6
전체		453,429,866	404,242,474	151,282,195	16.5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

자료: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s Canada)

< 캐나다 주요 수출·입 품목 >

상위 수출 품목	1. 석유와 역청유(원유로 한정)	6. 의약품
	2. 승용차	7.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
	3. 금	8. 석유가스 및 탄화수소 가스
	4. 자동차 부품	9. 밀
	5. 제재목	10. 헬리콥터, 비행기, 우주선
상위 수입 품목	1. 승용차	6. 금
	2. 자동차 부품	7. 석유와 역청유(원유로 한정)
	3. 트럭 및 화물자동차	8. 의약품
	4. 자동자료처리기계	9.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
	5. 전화기, 휴대폰	10. 면역혈청 및 면역물품

주: 순서는 수출·입액 규모 순이며, 자료는 2021년 기준

자료: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s Canada)

Ⅲ. 한-캐나다 교역 동향

□ 2020년 한-캐나다 교역액은 전년대비 12.8% 감소한 US\$ 98억 7,868만

-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 및 수입은 각각 US\$ 54억 6,399만, US\$ 44억 1,469만으로 무역수지는 US\$10억 4,930만 흑자를 기록
- 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23.3% 하락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총 교역액 규모 감소

< 한-캐나다 교역동향 >

(단위: US\$ 천, %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 출	4,884,917(5.7)	4,717,661(-3.4)	5,743,231(21.7)	5,567,589(-3.1)	5,463,996(-1.9)
수 입	3,942,541(-1.0)	5,042,593(27.9)	5,753,279(14.1)	5,758,663(0.1)	4,414,692(-23.3)
수 지	942,376	-324,932	-10,048	-191,074	1,049,304

주: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□ 2021년 1~5월,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, 전년동기 대비 52.0% 증가

-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전년동기 대비 10개 품목 모두 수출 증가
 - 면역혈청 및 면역제품(3,575.2%), 합금평판압연제품*(401.3%), 냉장고(226.5%), 승용차(66.3%), 합금강관(65.0%), 타이어(50.2%), 액체펌프(50.1%), 합금평판압연제품**(43.2%), 자동차부품(35.4%), 휴대전화(29.6%) 품목 등 수출 증가

* 평판압연제품 (HSK 7208)

** 평판압연제품 (HSK 7210)

-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면역혈청 및 면역제품 수출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속됨.

〈 對 캐나다 주요품목 수출 동향 〉

(단위: US\$ 천, %)

순위	HS코드	품 목	2019년	2020년	2021년 (1월~5월)	
			금 액	금 액	금 액	증감률
1	8703	승용차	2,582,140	2,775,455	1,504,114	66.3
2	8708	자동차부품	223,733	159,782	75,302	35.4
3	8517	휴대전화	451,062	203,842	62,615	29.6
4	7216	합금강관	101,124	75,552	57,296	65.0
5	7208	합금평판압연	27,260	21,911	41,771	401.3
6	7210	합금평판압연	48,540	64,078	39,417	43.2
7	8418	냉장고	37,318	63,807	36,754	226.5
8	8413	액체펌프	58,823	68,346	36,280	50.1
9	3002	면역혈청 및 면역제품	4,108	18,179	33,995	3,575.2
10	4011	타이어	85,562	57,170	33,048	50.2
총계			5,567,589	5,463,996	2,806,890	52.0

주: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□ 2021년 1~5월 對 캐나다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8.9% 증가

- 10개 주요 수입 품목 중 전년동기 대비 8개 품목에서 수입 증가
 - 석유, 역청유(39,306,808.8%), 금(729.4%), 동광(120.7%), 철광(73.8%), 유채유(58.7%), 돼지고기(18.2%), 조제식료품(16.8%), 반화학목재펠프(8.0%) 등의 품목의 수입액 증가
 - 특히,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경제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되며 석유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- 반면, 유연탄(-24.4%), 칼륨비료(-16.8%) 등의 품목 수입은 감소

< 對 캐나다 주요품목 수입 동향 >

(단위: US\$ 천, %)

순위	HS코드	품 목	2019년	2020년	2021년 (1월~5월)	
			금 액	금 액	금 액	증감률
1	2701	유연탄	1,672,506	1,175,287	404,066	-24.4
2	2603	동광	504,675	453,282	347,687	120.7
3	2601	철광	338,059	347,597	246,462	73.8
4	2709	석유, 역청유	61,240	22,145	195,748	39,306,808.8
5	7108	금	122,749	23,080	191,332	729.4
6	1514	유채유	110,957	96,803	73,163	58.7
7	0203	돼지고기	127,877	120,084	61,067	18.2
8	3104	칼륨비료	150,418	133,753	53,050	-16.8
9	4705	반화학목재 펄프	149,122	100,142	50,139	8.0
10	2016	조제식료품	79,776	94,095	44,573	16.8
총계			5,758,663	4,414,692	2,527,880	38.9

주: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ITA)

□ 한-캐나다 투자동향

○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s Canada)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對 캐나다 투자액(누적 기준)은 약 C\$30억 7,500만 규모

- 제조업, 금융 및 보험업, 광업이 연간 투자액의 90% 차지
- 최근에는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

○ 한편, 2020년 캐나다의 對 한국 투자액(누적 기준)은 C\$18억 1,300만 기록

- 주요 투자 산업은 제조업, 금융 및 보험업, 도·소매업 등

< 한-캐나다 투자동향 >

(단위: C\$ 백 만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對 캐나다	2,079	2,510	3,498	2,827	3,075
對 한국	1,599	1,849	2,470	1,543	1,813

자료 : 캐나다 통계청(Statistic Canada), Total Book Value 기준

□ 대한수입규제 동향

○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총 13건이며,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12건 및 상계관세 1건임.*

－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제품이 12건, 전기전자(유입식 변압기) 1건으로 집계

* 한국산 냉연강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해당

○ 캐나다는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하여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 중.

－ 중국과 한국산 철강제품이 긴밀히 통합되었다고 믿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.

< 캐나다의 대한수입규제 현황 >

구 분	조사개시	최종판정	품 목	내 용
구조용 강관	'03.3.21.	'03.11.17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89% － 부과기간 : ~'24.10.15
동계관연결구류	'06.6.8.	'07.1.18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0%~242% － 부과기간 : ~'21.11.27
유입식 변압기	'12.4.23.	'12.10.22.	전기·전자	－ 관세율 : 34.8%~101% － 부과기간 : ~'23.5.30
용접 탄소강관	'12.5.14.	'12.11.9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54.2% － 부과기간 : ~'23.10.14
동 관	'13.5.22.	'13.11.18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5.5%~82.4% － 부과기간 : ~'24.9.24
후판(열연강판)	'13.9.5.	'14.4.17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1.9%~59.7% － 부과기간 : ~'25.3.12 － 20.3.12. : 일몰재심 최종판정
콘크리트 보강용 철근	'14.6.13.	'15.1.9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41% － 부과기간 : '15.1.9~'25.10.14 － '20.5.22: 일몰재심 조사결과 발표 － '20.10.14: 일몰재심 최종판정(CITT)
유정용 강관	'14.7.21.	'15.3.3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0%~37.4% － 부과기간 : ~'25.12.29 － '20.5.25 : 연례재심 최종판정
산업용 철가공부품	'16.9.20.	'17.4.25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2.4%~45.8% － 부과기간 : ~'22.5.24.
탄소합금강관	'17.6.8.	'17.12.5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4.1%~88.1% － 부과기간 : ~'23.1.3.
냉연강판	'18.5.25.	'18.12.21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53% － 1톤당 86,733원의 상계관세 부과 － 부과기간 : ~'23.12.20
도금강판	'18.7.26.	'19.1.21.	철강·금속	－ 관세율 : 9%~40% － 부과기간 : ~'24.2.20

자료 : 캐나다 국경관리청(CBSA)

□ 2021년 상반기 한-캐나다 FTA(발효: '15.1.1) 활용률 96.4% 기록

- 한국의 對 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철강 및 금속제품, 전자제품, 휴대전화 등
 -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, 광물, 펄프, 곡류, 육류 등으로 캐나다의 주요 1차 산업 제품으로 구성됨.
- 한-캐나다 FTA 발효 5년 차 관세 철폐 품목은 타이어, 건축재, 가공식품 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중
 -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로 97.5%(품목 수 기준)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
 - 10년 차 관세 철폐 품목으로는 1인승 승용차, 기타 차량 등이 포함

<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>

한국 양허품목	양허단계	캐나다 양허품목
승용차, 자동차부품, 석유화학제품, 섬유·의류, 바닷가재(냉동), 면류 등	즉시 철폐	자동차부품, 컬러TV, 진공청소기, 타일, 가공식품(라면, 간장), 광학기기 등
제재목, 의료기기, 밸브, 합성수지, 식료품(빵, 포도주, 마요네즈) 등	3년 철폐	승용차, 자동차부품, 화장품, 냉장고, 섬유·의류, 바닥재, 농산물(일부) 등
타이어, 돼지고기(냉장, 냉동), 베어링, 기타 화장품, 냉동수산물(대구, 농어 등)	5년 철폐	타이어, 신발, 양말, 축전지, 전구, 기타 조명기기, 가공식품(전분·분말, 케첩, 아이스크림) 등
제재목, 합판, 의료용전자기기, 건축용목제품, 농산물(감자, 고구마, 사과, 복숭아) 등	10년 철폐	기타차량, 승용차(1인승)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(www.fta.go.kr)

Ⅳ. 현지 체류 참고사항

□ 교통

- (택시) 시내에는 택시 승강장이 따로 없어 노상에서 자유롭게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며, 주택가나 교외 지역은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.
 - 기본요금: C\$4.25 (약 3,930원)
 - 요금 지불 시 15% 정도의 팁을 추가하는 것이 관행
- (공유차량)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요청할 수 있는 우버(Uber), 리프트(Lyft)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
 -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1.8~2.5배의 할증료가 추가됨.
 - 주(州)별 교통법이 상이해 우버(Uber)는 서스캐처원, 매니토바, 노바스코샤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, 리프트(Lyft)는 온타리오,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함.
- (대중교통) 토론토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TTC(Toronto Transit Commission)는 버스, 지하철 및 경전철(Street car)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, 환승 티켓(Transfer) 지참 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가능함.
 - 편도요금: C\$3.25 (약 3,000원)
 - 필요에 따라 1일, 1주일, 한 달, 1년 패스 구매 가능
 - 버스와 경전철 탑승 시 정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함.
(규정상 운전기사의 현금 취급이 금지되고 있어 거스름돈을 받지 못할 수 있음.)
 - 버스, 경전철, 지하철 등 노선도는 TTC 웹사이트(www.ttc.ca/Routes/index.jsp)
- (시외버스) 토론토 외곽의 주요 도시들은 각각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
 - 주요 도시별 대중교통 정보 확인 웹사이트
 - Mississauga Transit : www.mississauga.ca
 - York Region Transit : www.yorkregiontransit.com
 - Go Transit : www.gotransit.com

- (렌트카) 국제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만으로 승용차(보험 가입) 대여 가능
 - 단, 운전자가 만 25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행거리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 -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체는 AVIS, Hertz 및 Enterprise 등

□ 화폐 및 환전

- (화폐) 캐나다 달러(CAD, Canadian Dollar)는 통상 “\$”로 표기되나, 미국 달러와 함께 명시될 경우 “C\$”로 표기
 - 화폐 종류는 미국과 유사한데, 지폐는 \$100, \$50, \$20, \$10, \$5 등 다섯 종류가 사용되며, 동전은 \$2, \$1, ¢25, ¢10, ¢5가 유통됨.
 - ¢1 동전은 2013년부터 유통 중단됨.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거래 시에는 ¢1 단위까지 계산하나, 현금 결제의 경우 ¢5 단위로 반올림하여 사용함.
- (환율) 미화 대비 환율은 1CAD 당 0.82USD이며, 원화 대비 환율은 1CAD당 926원 수준 (2021년 5월 평균 환율 기준)
- (환전) 은행, 공항 환전소, 호텔 등에서 당일 환율에 따라 환전 가능
 - 관광지의 일부 업소, 공항 면세점 등에서는 미화를 받기도 하나 적용환율에서 다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
□ 전화

- (일반전화) 시내 통화 시 전화번호 10자리를 그대로 누르면 되나, 외곽이나 장거리 통화를 할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‘1’을 추가로 누름.
 - 토론토 시내전화 : 전화번호 10자리 (XXX-XXX-XXXX)
 - 미국, 시외전화, 장거리전화 : 1 + 지역 번호(3자리) + 전화번호(7자리)
 -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 : 011 + 82(한국) + 2(서울) + 전화번호
 -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(Collect Call) 전화 시 : +1-888-431-5699 → 1번 메뉴
- (공중전화) 전화번호를 누르면 공중전화 화면에 필요한 요금이 안내되며, 이때 필요한 금액을 동전으로 넣으면 통화 가능
 - 시내전화 기본요금: ¢50

- (수신자 부담, Collect Call) 공중전화 0번을 눌러 전화 교환원에게 수신자 부담임을 알린 후,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교환원이 수신자에게 요금부담 의사를 확인한 후 연결해 줌.

□ 팁(Tip) 관행

- (식당) 셀프서비스 식당을 제외하고는 청구금액의 15% 상당을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
 - 청구 금액에 팁을 미리 적용하는 음식점도 있으므로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
- (택시) 요금이 적은 경우도 청구금액의 10~15%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
 -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택시 기사가 직접 짐을 운반할 경우,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할 것을 추천함.
- (호텔) 숙박시설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에는 짐 1개당 C\$1, 침실 청소 시에는 테이블 위에 C\$1~2정도 놓아두는 것이 적당함.
 - 일반적으로 룸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금의 10~15%를 팁으로 지불하며, 수건이나 담요 등을 추가로 요청할 때에도 C\$1정도의 팁을 지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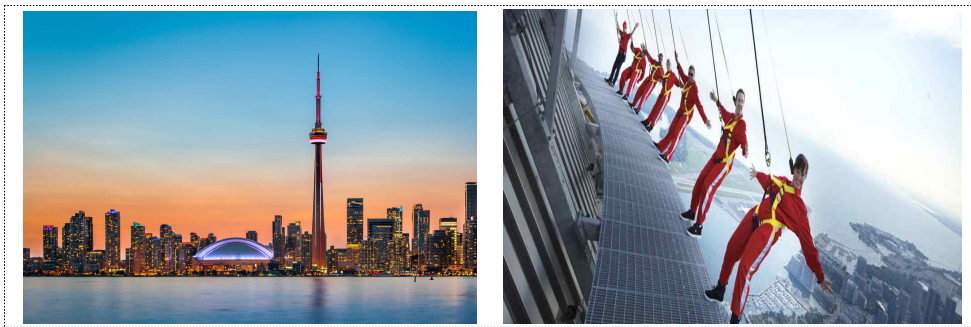
□ 기타사항

- (주류) 온타리오 주는 주류 판매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주정부가 운영하는 전문매장(LCBO, Beer Store, Wine Rack) 또는 일부 슈퍼마켓에서만 구입 가능
 - 호텔이나 식당, 술집 등에서는 일정 시간(새벽 2시)까지만 주류를 판매함.
 - 공원이나 대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함.
- (시차) 온타리오 주는 서울보다 14시간이 느리며, 일광 절약(DST)* 기간 (3월~11월)에는 13시간 시차 적용
 - * Daylight Saving Time(DST): 주간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며, 통상적으로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시행
- (소비세)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별로 상이하며, 온타리오 주는 대부분의 상품은 구입 시 13%의 통합소비세(HST)가 별도로 부과됨.
 -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(12%), 퀘벡 주(14.975%), 앨버타 주(5%), 노바스코샤 주(15%) 등
- (전압) 110V로 한국산 전자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미리 준비해야 함.

□ 주요 명소

① CN Tower(CN 타워)

- 토론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송출탑(553.3m)
 - 전망대에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온타리오 호수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세인트 로렌스 강(Saint Lawrence River)을 비롯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음.
 - 이 외에도 케이블로 몸을 연결하여 CN 타워를 걷는 체험과 360도 회전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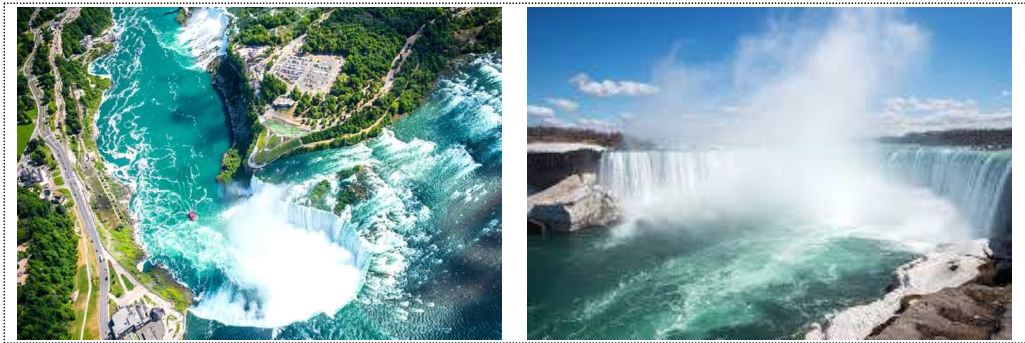
② Toronto Island(토론토 아일랜드)

- 1858년 태풍으로 인해 생긴 섬으로 다운타운 최남단의 호숫가에 위치
 - 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이 중 센터 아일랜드(Centre Island)는 놀이 공원과 산책로,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잔디밭과 해변 등이 있음.
 - 유람선을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면 탁 트이는 토론토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음.
 - 1인 왕복 C\$8.50(약 7,870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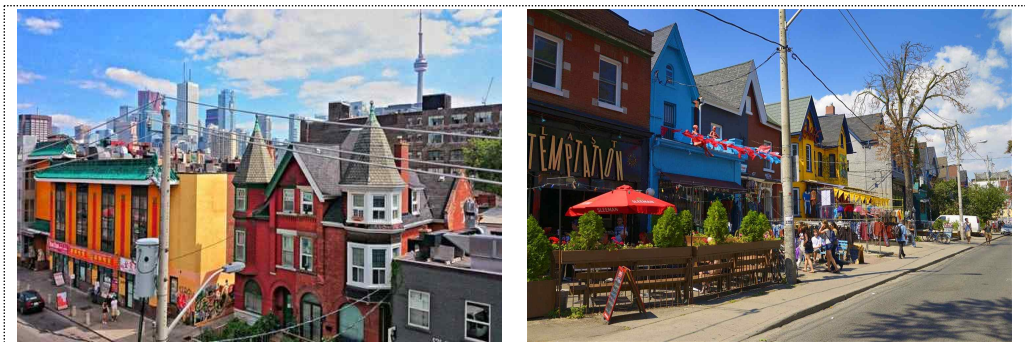
③ Niagara Falls(나이아가라 폭포)

-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위치해있으며, 5대 호수 중 하나인 에리 호수(Lake Erie)와 온타리오 호수(Lake Ontario)를 연결함.
- 고트섬(Goat Island)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와 아메리카 폭포로 나뉘지는데, 말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가 더 웅대하여 인기가 높음.
- 나이아가라 폭포를 중심으로 카지노, 리조트, 쇼핑몰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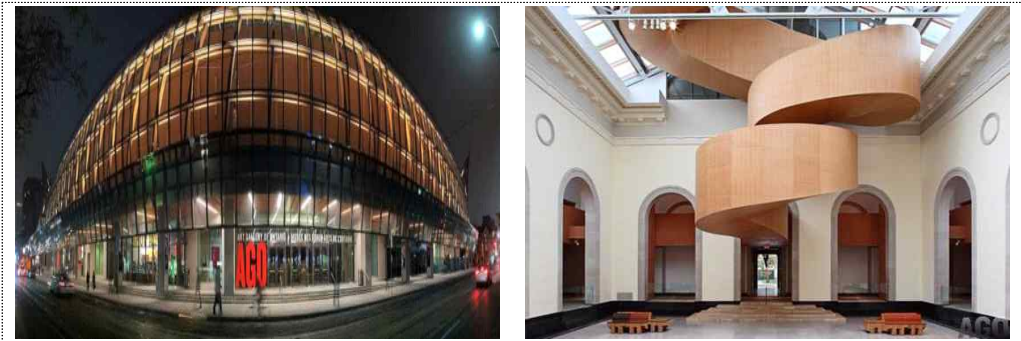
④ Kensington Market(켄싱턴 시장)

- 토론토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로, 2006년 캐나다 역사 유적지(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)로 지정됨.
- 1920~30년대에는 유대인 시장이었으나,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중남미, 소말리아, 수단, 이란, 베트남 등 정치적 난민 출신 이민자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시장
- 현재는 카리브해, 유럽, 남미, 중동,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제품과 빈티지 제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토론토의 다문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꼽힘.



⑤ Art Gallery of Ontario(온타리오 아트 갤러리)

- 1900년에 개장한 캐나다 대표 사설 미술관으로, 캐나다를 대표하는 7명의 화가들(Group of 7)의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
 - 이 외에도 클로드 모네(Claude Monet), 빈센트 반 고흐(Vincent van Gogh), 파블로 피카소(Pablo Picasso) 등 유럽 대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음.
 - 중세시대부터 르네상스, 현대 미술까지 약 9만 점 이상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음.
 -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들 및 문화인들에게 인기가 있음.
 - 1인 입장료 C\$25 (약 23,160원), 25세 이하는 무료



V. 무역관 오시는 방법

□ 토론토 무역관 연락처

- 주소 : 2 St. Clair Avenue West, Suite 800, Toronto, Ontario, M4V 1L5 Canada
- 전화 : 1-416-368-3399
- 팩스 : 1-416-368-2893
- 근무 시간 : 월요일~금요일 09:00~17:00

□ 토론토 무역관 오시는 방법

○ 택시

-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(2 St. Clair Avenue West, Toronto)를 알려 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함.
- 공항택시 요금은 C\$57~82 내외이며, 팁(10~15%)을 포함할 시 총 비용은 C\$63~88 가량 소요

○ 공항열차(Union Pearson Express)

- 공항열차 운행 시간 : 평일 05:42~22:27, 주말 06:27~22:27 (2021년 6월 기준)
- 공항 출구(Terminal 1)로 나와 Pearson(Airport)역에서 열차(직행) 승차
 - * 매 30분마다 운행되며,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6분
- 1인 편도요금은 C\$12.35이며, 티켓은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구매
- Union(Downtown)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역(TTC)에서 Yellow Line(Finch 방면) 탑승 및 St. Clair 역에서 하차
- 출구를 빠져 나와 2 St. Clair Ave. West, 8층에 위치한 무역관 사무실 도착

□ 무역관 위치



Ⅵ. 유관기관 및 숙소/식당

1. 현지 유관기관

☐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

- 주소 : 150 Boteler Street, Ottawa, Ontario, K1N 5A6 Canada
- 전화/팩스 : 1-613-244-5010 / 1-613-986-0482
- 홈페이지 : <http://can-ottawa.mofa.go.kr>

☐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

- 주소 : 555 Avenue Road, Toronto, Ontario, M4V 2J7 Canada
- 전화/팩스 : 1-416-920-3809 / 1-416-994-4490
- 홈페이지 : <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toronto-ko/index.do>

☐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

- 주소 : Suite 3600, 1250 René-Lévesque Boulevard West, Montreal, Quebec, H3B 4W8 Canada
- 전화/팩스 : 1-514-845-2555 / 1-514-261-4677
- 홈페이지 : <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montreal-ko/index.do>

2. 숙소/식당

□ 주요호텔

호텔 명	주소(위치)	전화번호	가격(CAD)
Hotel Victoria	56 Yonge St. (시내)	(416) 363-1666	99~170
Chelsea Hotel	33 Gerrard St. W. (시내)	(416) 595-1975	150~250
Marriott Downtown	525 Bay St. (시내)	(416) 597-9200	299~400
Hotel Novotel North York	3 Park Home Ave. (북부)	(416) 733-2929	177~300
Liberty Suites Hotel	7191 Yonge St. (북부)	(905) 604-9400	179~550
Sheraton Toronto Airport	801 Dixon Rd. (서부)	(416) 675-6100	151~250
Westin Toronto Airport	950 Dixon Rd. (서부)	(416) 675-9444	177~300

주: 가격은 기간별로 상이하며, 세금(13%), 숙박세(4%) 및 수수료 미포함된 금액임.

자료: 각 호텔 웹사이트

□ 추천식당

식당 명	주소(위치)	전화번호	종류
아리수	584 Bloor St. W. (시내)	(416) 533-8104	한식
미네르바 부엌이	700 Bloor St. (시내)	(416) 538-3030	한식
김치하우스	149 Dundas St. W. (시내)	(416) 599-1989	한식
K-Wok	730 Yonge St. (시내)	(647) 350-5965	중식·해산물
Yamato	24 Bellair St. (시내)	(416) 927-0077	일식
Miku	10 Bay St. #105 (시내)	(647) 347-7347	일식
La Maquette	111 King St. E. (시내)	(647) 977-6294	프랑스
Mykonos Mediterranean Grill	881 Yonge St. (시내)	(416) 963-8444	지중해식
조선옥	7353 Yonge St. (북부)	(905) 707-8426	한식
서울관(스틸스)	180 Steeles Ave. W. #24 (북부)	(905) 709-1593	한식
Mandarin	2200 Yonge St. (미드타운)	(416) 486-2222	중식 뷔페
서울관(더프린)	3220 Dufferin St. (서부)	(416) 782-4405	한식·일식
7 West Café	7 Charles St. W. (시내)	(416) 928-9041	양식
이치반	15 Spring Garden Ave (북부)	(416) 512-9014	한식

Ⅶ. 무역관 직원 연락처

☐ 대표전화 : 1-416-368-3399

성명	직위	담당 업무	휴대전화(내선)
정영화	관장	무역관 업무 총괄	1-647-286-1080 (ext. 201)
노한상	부관장	수출마케팅	1-647-294-0129 (ext. 202)
문선준	과장	투자유치, 창업	1-647-274-6250 (ext. 204)
장민영	과장	K-MOVE, 정보조사	1-437-533-8502 (ext. 203)

최종 수정 : 2021. 6.

해외출장 가이드



www.kotra.or.kr